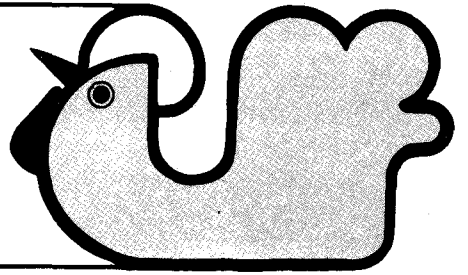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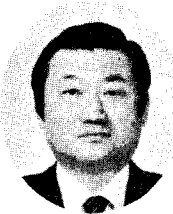
소식

대한양계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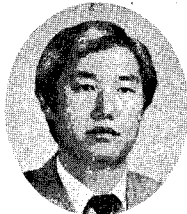


홍보협찬금 31, 100, 000 원 모금

- 금년목표 1억5천만원 -



정태원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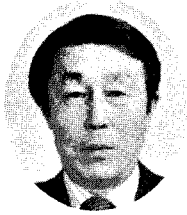
신흥종 부회장



한 순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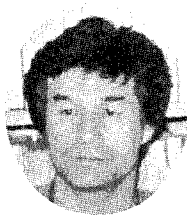
장민기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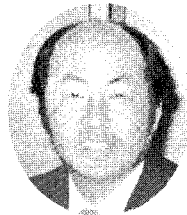
김중경 사장



배선채 사장



이재식 사장



배성황 사장



박영인 회장

본회는 올해에도 중점사업으로 닭고기·계란 소비촉진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 재원조달 방법이 아직 제도화 되지 않아 양계농가 및 유관업체의 자발적인 협찬금으로 충당키로 하고 현재 협찬금을 접수중에 있다.

올해 홍보협찬금 목표는 1억5천만원으로 3월31일 현재 31,100,000원이 접수되었다.

전 양계인과 유관업체·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50만원 이상 협찬자(사진참조)는 다음과

같다.

- 정태원(홍성광주농장) : 5,000,000원
- 신흥종(고창양계) : 3,000,000원
- 한 순(홍일농장) : 3,000,000원
- 장민기(버들농원) : 1,000,000원
- 김중경(오경농장) : 1,000,000원
- 배선채(중원농장) : 2,000,000원
- 이재식(계유부회장) : 500,000원
- 배성황(삼화농원) : 1,000,000원
- 박영인(미국사료곡물협회) : 14,000,000원

제1차 육계가격안정협의회개최

- 생산기반 조사요원제도 부활검토 -

지난 3월23일(수) 오후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88년도 제1차 육계가격안정협의회(위원장 장민기)가 개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육계가격안정협의회 위원들은

한결같이 육계불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육계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입란과 입추를 정확하게 조사, 이를 토대로 육계가 과잉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동시에 생산이 지속적 으로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절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부화업체 및 종계업체들



의 입란과 입추규모 등을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가 20여개의 관련단체 및 기구 등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최종 집계 발표하고 있으나 일부 부화장들의 비협조로 인해 통계의 정확도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은 부화 및 종계업계 생산기반 조사요원제도와 같은 제도 등의 부활내지는 도입이 절실하다고 전해를 같이하고 아울러 무분별한 입란과 입추의 자세를 촉구했다.

'88 학교조리실습 지원

- 예비 영양사 · 주부 대상 -

본회는 양계산물 소비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여고 및 대학(식품영양학과)에 닭고기·계란 조리실습을 지원키로 확정하였다.

미래의 주부이며 예비 영양사인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교조리실습은 학생들이 직접 조리할 기회를 줌으로써 계산물과의 친근감을 주는 동시에 다양하고 맛있는 요리를 배워 앞으로 많은 활용을 하여 소비촉진은 물론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수업으로 본다.

본 조리실습은 86년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반응이 매우 좋아 기대되는 사업으로 평가되어 87년도에도 서울시내 10개교에서 15회에 걸쳐 실시해 연 9,000여명이 닭고기·계란조리실습을 했다.

조리실습의 진행은 우선 닭고기·계란의 영양적, 경제적 우수성과 특성에 대한 이론강의를 본회 홍보실 직원이 강의하며 곧 이어 조리시범 강습회를 통해 조리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본회에서 제공한 닭고기와 계란을 이용해 참석한 학생들 모두가 직접 요리를 만들고, 완성된 요리는 시식회를 갖는다.

88년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학 교 명	실 습 기 간	인 원
경기간호보건전문대학	3월31일, 4월1일	160명(4학급)
인양공업전문대학	4월27일, 30일	120명(3학급)

동남보건전문대학	5월24일, 28일	170명(4학급)
상일여자고등학교	6월14일~22일	1,200명(20학급)
삼성고등학교	9월6일~10일	480명(8학급)
인천간호보건전문대학	9월13일~16일	120명(3학급)
계		2,250명(42학급)

수입개방과 자조금제도에 대한 간담회

본회는 지난 3월11일 및 14일에 부산·경남지부, 전남지부 회의실에서 양계 산업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미사료곡물협회의 협조를 받아 농민단체조직과 자조금제도 및 수입개방에 대처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의에는 미국 자조금제도 전문가 미니야드씨의 「농민단체조직과 자조금제도」, 본회 노영한국장의 「수입개방에 대처한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본문참조)

3월 육계분과위원회 개최

- 4월회의 27일(수) 오후 2시 전주에서 -



지난 3월28일(월) 오후 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3월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장민기)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가축위생연구소 김상희 선임계역과장의 인사소개가 있었으며 전계역과장 남궁선(현검정화학과장) 박사에 의해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질병문제에 대한 강의와 질의토론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서 남궁선박사는 가축위생연구소의 순수업무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만큼 양축가들이 연구소를 많이 이용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원인모를 질병발생시 연구소와의 격의없는문의와 협조체제로 고질적인 질병문제에 대한 공동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는 질병차원에 있어서도 병원체가 침입하

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양계농가에 서도 근본적인 질병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환경적인 면 과 영양적인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육계농가에서는 좋은 병아리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축산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료위생이 선결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이에대한 사료검사제도가 법적으로 제도 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역별 정보교환에서 서울경기지역의 육계값은 세미 750~800원, 하이 680~700원, 중부지역은 세미 750~800원, 하이 650~700원, 영호남지역 은 하이 630~730원에 거래되었고, 병아리값은 지 역에 관계없이 180~220원으로 입추상황이 꾸준한 상황이며 가격은 오를 전망은 아니라고 분석하였다.

육계값은 1월20일경을 기점으로 해서 병아리 입식 물량이 많았던 것이 3월이후 과잉출하되기 때문에 육 계가격형성이 별로 밝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최근 사료물량이 3만~3만5천톤을 유지하고 있어 이 수치는 전년대비 30% 증가추세인 현상으로, 소비 가 이 추세를 따라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하에 이에 대한 육계 농가 스스로가 문제점을 직시하고 자구책 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앞으로는육 계산업발전 방향 설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와 정보교 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대책과 발전방향 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법정전염병인 추백리질병을 퇴 치키 위해서는 월간양계에 게재된 추백리 진단액사용 실적란을 참고하여 전국부화종계장에서 진단액을 사용 하는 농장과 사용하지 않는 농장을 선별해 우량품종의 병아리선택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본 위원회가 매월 정보교환만 나누는 차원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관련부처의 정책적인 방향제시에 대 한 자료를 통보해 주어 불모지대인 육계유통구조를 개 선해 나가는데 힘써줄 것을 요청키로 하였으며, 아울 러 가축위생연구소가 좀더 소신있는 진단을 할수 있도 록 하기로 했다.

한편 양축가들의 질병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질 병발생시의 보고체제를 2원화하여 직접 연구소를 이 용하는 방법과 본회에서도 질병신고 접수창구를 마련, 전화 또는 서면으로 연락을 받아 즉시 연구소와의 협 조의뢰하에 양계질병에 대한 만전을 기하기로 다짐했 다.

다음 육계분과위원회는 오는 4월27일(수) 오후2시 본회 전북지부인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질병신고전화 :

(0343) 2-2151~5 (가축위생연구소)

(02) 752-3571~2 (대한양계협회)

3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가격조절권 회복위해 단합키로 -



△송기홍 원 장



△심준식 위원장

지난 3월10일(목) 오후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3월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심준식)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다나가축약품의 송기홍원장에 의해 질병방역에 대한 강연이 있었는데 최근 채란계에 발생 하는 질병에는 레오바이러스 감염증 및 마력병, 백혈 병, IB, AE, ILT 등인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대한 방역 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IB 감염시45~50주 정도에 산란저하를 보이며, 발생하는 원인은 영 양불균형과 사양관리의 특수성에서도 올 수 있다고 추 측하는 한편 ILT의 경우에도 백신만으로는 완벽한 예 방을 기대하기보다는 평소 철저한 소독과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집중 프로그램에 의한 계속적인 백신사용이 강조되었다.

한편 난가고시의 합리화와 생산자 권익 보호를 위 해서는 계란유통과정에서의 후장기제도가 지속되는한 제값을 받을 수 없음을 지적, 각자의 사업과 전체 채란 업계를 위해 계란출고시 반드시 장기를 받아두는데 다 같이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대단위 계란집하장을 설치·운영하여 생산자 스스로가 가격조절권을 회복해 나가자고 결의했다.

수입개방의 대책에 대해서는 단합된 양계인의 힘을 과시해서라도 수입개방을 결사반대하다는 입장을 밝 혔으며, 수입개방시 수입이 용이치 않도록 여러가지 까 다로운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계란상인연합회의 명으로 상인들이 생 산자를 불리하게 하는 단결추구문이 광주지역 회원들 에 의해 발견됨에 따라 본회에서는 이에대한 사실조사 와 함께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요식업소의 새로운 메뉴 조리강습회

- 1988. 3. 30 프라자호텔 덕수홀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주최, 본회·미국 사료곡물협회·양돈협회 후원으로 서울시내 요식업소 경영자를 대상으로 닭고기를 이용한 요식업소의 새로운 메뉴 조리강습회를 실시했다.

1988. 3. 30 (수) 14:00 서울 프라자호텔 22층 덕수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요식업소의 새로운 메뉴 조리법이 소개되었다.

닭고기 메뉴로는 닭보양탕, 닭볶음탕, 닭볶음, 닭살겨자구이, 닭온반 등이 선보였으며 강습 후에 참가자를 대상으로 시식회가 있었다.

양계산업 발전시책 회신밝혀

농림수산부는 본회가 민정당에 건의한 양계산업에 대한 종합정책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입장을 회신하여 왔다.

- 닭고기 계란을 비롯한 축산물 수입 반대 및 각종 세제지원
 - 우리부에서는 최근 가중되고 있는 수입 개방압력에 대처코자 다각적인 연구검토를 하고 국내 양축가 보호를 위하여 수입개방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며, 한편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유통구조의 개선, 생산원자재에 대한 세계의 개선, 축사시설의 개선 등으로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있음.
 - 배합사료용 원료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어 사료곡물은 7%에서 5%로 대두 등 기타는 10-20%에서 7%로 인하조정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료원료의 관세인하와 배합사료의 부가세 면제를 위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 양계산물 규격기준제정
 - 양계산물에 대한 규격기준은 관련법규의 제정등

계속적인 연구검토후 처리할 계획임.

○ 자조금제도실시

- 축산업에 대한 자조금제실시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동제도의 도입가능성여부에 대하여 연구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 가공처리유통에 축협중앙회의 직접참여

-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조절을 위하여 축협중앙회 및 회원 조합에서 축진기금등을 운용하여 가격하락시 수매 비축 사업을 하고 있으며
-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는 도매시장의 근대화, 계란 집하장 설치사업 및 계열화 사업등을 추진중에 있음.

닭고기수입개방 동조여부 사실조회

- 국내 유수업체와 구매계약체결 -

지난 2월26일 본회 육계분과위원 및 지역대표자 연석회의에서 국내 육가공회사의 닭고기수입개방 동조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두산식품(주)에 이어 코델리(주)에서도 전혀 관련사실이 없음을 통보해왔다.

한편 코델리사는 국내 유수한 닭고기 생산업체 (도계장)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88 제1차 감별분과위원회 개최

- 6월 3일, 감별사자격시험 및 경진대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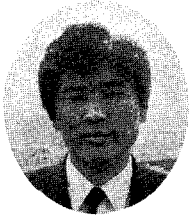
지난 3월26일(토) 본회의회의실에서 제1차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민경두)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88년도 제1차 감별사자격시험 및 경진대회를 오는 6월 3일 해외병아리감별학원에서 치르기로 결정했다.

시험에 응시코자 하는분은 본지 별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신규직원 채용

- 권동원씨 편집부 기자로 -



권동원 기자

본회는 지난 3월 1일자로 남두희 전 편집부장이홍보실장으로 발령됨에 따라 편집국에 권동원씨(중앙대학교 축산학과졸)를 4월 1일부로 신규 채용했다.

제5차 일본양계기술연수생 선발

- 양계장 및 난가공공장에 9명 -



제 5 차 일본양계기술 연수생과전 면접에서 9명이 선발되었다.

올해로 5번째 과전되는 일본양계 연수생은 일본대단위 채란양계장의 사육기술습득과 사양관리 집란센터(G/P 시설), 계란가공, 계분의 활용 등 일본의 선진양계기술을 1년에 걸쳐 登富土 割卵工場과 農事組合法人 清明養鶏의 각 농장과 관련사업장을 돌면서 각종 기술을 익히게 된다.

연수생선발은 축산관련학과가 있는 각 전문대학에서 추천받아 면접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였으며 연수생의 체재비등은 수용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양계기술연수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기완, 최정대, 박영수,
하희중, 류명철, 홍영민,
김재훈, 조영완, 조현득, (이상 9명)

어려운 대학생 학비전달

본회 전북지부 서수협의회(회장 고석수) 회원들은

양계업계의 불황속에서도 지역관내에서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노현필군(22. 물리학과 4년)이 등록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65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3월 편집위원회 개최



88년도 제 3 차 편집위원회(위원장 정선부 박사)가 지난 3월 16일(수) 오후 2시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양계산물의 적정가격을 분석, 양계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대응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홍보계재기로 검토하고, 아울러 날씨가 푸근해지면서 지역별로 질병이 만연되고 있음을 지적, 이에대한 내용을 소개하자는 의견도 중점 토의되었다.

닭(종계)일반검정 세부실시요령 개정

- 지난해 닭분과위원회 협의거쳐 -

지난해 12월 19일 본회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축개량협의회 닭분과위원회 협의결과에 의한 개선사항조치지시(농림수산부 중소가축과 27420-1577)에 의거 닭(종계)일반검정 세부실시요령 <변경분>이 제정 시행된다.

닭(종계)일반검정 세부실시요령 全文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검정신청일령: 종계업을 경영하는 자는 종계의 부화일로부터 20주령 이내에 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2 조 검정신청서 제출시기 및 처리기간: 종계업자가 필요한 시기에 년중 어느때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본회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검정신청서류: 종계일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본회(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종계검정신청서 2부(별지 1호서식)

2. 외국으로부터 직수입된 종계(PL, GDS, PS)는 수입시 첨부된 종계보증서(종계혈통서) 1부.
3. 수입된 종계의 후대는 초생추 인수시 발행된 병아리 계통보증서 1부.
4. 국산종계는 육종농장에서 초생추 인수시 발행된 병아리 계통보증서 1부.
5. 순계(PL)는 전기 "1"-"4"호에 해당하는 서류외에 검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종계검정방법: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로 구분 실시한다.

1. 서류검사: 종계검정신청서와 병아리 계통보증서(혈통증명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지는 서류 보완토록 조치하고 이상이 없을시 현지검사를 실시한다. 단, 순계(PL), 원종계(GPS)는 담당자 차원의 서류심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검정위원회에 회부 심사 토록한다.
2. 현지심사
 - 가. 순계(PL), 원종계(GPS)는 현지심사를 하지않고 검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서류심의로 종계인정 여부를 결정하되 필요시 검정위원이 현지 출장심사도 할 수 있다.
 - 나. 종계(PS)는 현지심사는 본회 회장이 지정(위촉)하는 임직원이 담당한다.
 - 다. 현지 심사 확인사항
 - 마리수-검정신청수수와 사육관리대상상의 수수 및 실제 사육수수를 조사
 - 사육형태, 각종 대장의 활용상태, 방역위생상태(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 및 검색 등 이행사항) 등의 확인
 - 종계 유효기간이 경과한 닭 및 미검정 닭을 종계로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동일 계사내에 용도, 세대 및 계통이 다른 닭을 사육하고 있는지 여부

- 암수의 사육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암컷에 대한 수컷의 비율이 평사의 경우 100분지 6 이상 케이지의 경우 100분지 3 이상)

제5조 현지심사결과에 대한 조치: 현지심사자는 종계 현지심사 결과를 별첨 3호서식의 종계심사조서

1. 현지 심사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격으로 한다.
 - 계통보증서 또는 종계확인서가 없는 닭과 이에 서 생산된 닭.
 - 가축전염병 예방법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병 질병이 감염된 닭.
 - 세대별 품종 또는 계통이 다른 닭을 동일계사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2. 전호에 의거 실격한 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신청인과 해당시군에 통보하여 종계로 활용치 못하도록 조치함과 동시 검정신청에 대한 일건 서류를 반려한다.
3. 검정결과 종계로 인정된 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별지 1호서식의 검정확인서를 발급한다.
 - 종계(PS)에 대하여는 현지종계심사후 즉석에서 종계검정확인서를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검정확인서 발급시는 해당종계를 사육하는 계사동별로 별지 2호 서식의 검정필종(스티카)을 첨부하여야 한다.
 - 검정결과를 매건마다 해당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검정료 납부 및 징수

검정확인 수수료에 의거 소정의 검정료(수당 PL: 1원, GPS: 120원, PS: 30원)를 현지에서 납부 및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행일: 이 요령은 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알먹고 키자랑

닭먹고 힘자랑